



주님을 위하여 고통 당하는 자

쿠바의 감옥에 갇힌 어느 크리스천에게 사람들이 다른 교인들을
기소하는 진술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습니다.

그가 서명만 하면 그 진술서를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체포 당할
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.

그 죄수는 말하였습니다.

"나는 사슬에 묶여서 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."

그러자 공산당 간부가 대꾸했습니다.

"당신에게는 사슬이 채워져 있지도 않소."

"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여러 세기에 걸쳐 그리스도를 위하여
자신의 목숨을 바친 증인들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.

나도 그 사슬 중의 한 고리입니다. 나는 그 죄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."

니콜 사두나이트라고 하는 젊은 크리스천 부인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
리투아니아의 법정에서 게 돼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.

"오늘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. 저는 진리와 인간에
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재판을 받습니다.

제게는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고, 영광스러운
저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.

저에 대한 유죄판결은 오히려 저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.

지금 이 순간에 후회스러운 것은 제가 형제들을 위하여 한 일이
너무 보잘것없다는 사실입니다.

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행복을 누립니다. 사랑을 하지 않는 자들은
참된 행복을 모릅니다.

악은 멀리하되, 그 악을 행하는 자는 사랑해야 합니다.

이것은 예수님이라는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지요."

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 당하는 자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
당신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.

당신의 삶에도 그것을 적용해 보세요.

출처 - 저 높은 곳을 향하여 / R. 범브란트 (2002/04/26)